

사랑이 있는 푸른 우리마을



소사삼 완치자 축구경기 'AGAIN 2002' 행사에서...



함께하는 사랑 따뜻한 사회



박희갑

한국남동발전(주) 사장

“함께하는 사랑 따뜻한 사회”는 남동발전 사회봉사단 슬로건입니다. 남동발전은 이웃과 삶의 가치를 공유하고 보다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고자 활발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실제 직원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얻고 있는 것을 보면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이 사랑과 나눔인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가 한국별혈병어린이재단과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된 지도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정기적인 봉사활동, 희망나무심기 후원 등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활동에 많은 직원들이 보람과 애착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아암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완치율이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아와 환아 가족들이 희망과 용기라는 끈을 놓지 않고 치료에 전념하여 완치라는 기쁨을 얻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개최한 희망나무심기행사에서 어린 환아가 자신이 심은 나무와 건강한 모습으로 1년 후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는 모습을 가슴 뭉클하게 지켜본 기억이 있습니다.

환아들이 나무에서 희망을 찾고 의지를 다지는 것처럼 남동발전도 이들의 든든한 희망나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면을 빌어 소아암 완치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든 소아암 어린이들의 쾌유와 건강을 기원합니다.

희망을 위한 과정

살아가면서 즐겁고도 행복한 시간이 그렇지 않은 시간보다 더 많기를 바라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은 꼭 좋은 일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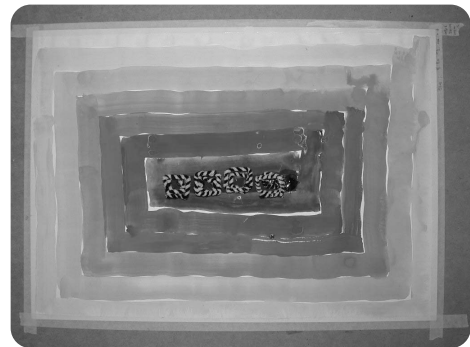
2005년 2월 1일 여의도성모병원에 입원하고, 골수검사 결과 ‘급성림프구성백혈병’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한 지 1년 반이 되어갑니다. 1년여의 시간은 10년보다도 더 많은 의미를, 아니 평생을 살면서도 생각하고 느끼지 못했을 깨우침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소연이는 평범한 어린이로, 애교 많은 딸로 예쁘게 자라주어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을 느끼게 하는 그런 존재였고, 우리 가정도 별다른 무리 없이 성실한 일상 속에 계획과 노력으로 하나씩 쌓아가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이의 아픔을 통해 이 세상의 일이 나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는 그동안의 자신감이 오만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질병으로 알고 있었던 ‘백혈병’이 그것도 가장 소중한 자식에게 다가온 아픔을 맞으면서, 처음에는 인정하지 못했지만 지속되는 병원생활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많은 부모들도 나와 똑같은 입장이었을 것이고 믿어지지 않는 큰 아픔이지만 정성스레 하루하루 치료에 임하며 같이 아파하고 위로가 되어 주면서, ‘희망과 믿음’으로 병마와 싸워 나갔습니다.

힘든 치료 과정 속에서도 참아내고 노력하는 소연이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이 제일 컸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병원에 있는 동안 늘 함께 했기 때문에 서로 떨어져 있어도 큰 위안이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시련이 아니었으면 가족이라는 존재의 소중함을 당연함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유지치료 기간이라 3개월에 한번씩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데, 집에서 함께 생활한다는 것이 늘 고맙게 생각되어집니다. 요즘은 ‘암’이라는 질병이 너무나도 흔한

질병이 된 것 같습니다. 주위의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볼 때도 내가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위로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시련은 소연이와 나, 우리가족, 주위사람들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련일 것입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생각이 더 깊어지고 의젓해지는 소연이 모습을 보면서, 소연이의 인생에 의미 있는 잠깐 동안의 힘든 과정일 뿐이라 믿습니다. 이웃에, 사회에, 사랑을 펼치고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게 되리라 믿으며, 희망을 위한 과정이기에 즐겁게 이겨나갈 수 있고 그 속에서 작은 소중함을 깊이 느끼며 오늘 하루도 고맙고 행복하게 지냅니다.



★ 위 그림은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소연이의 작품으로 제목은 ‘빛 속의 어둠’입니다. 감상해보세요~

국가암정보센터 1577-8899 www.cancer.go.kr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국립암센터에서 운영하는 국가암정보센터는 암환자, 가족 및 암과 관련된 정보를 필요로 하는 모든 분들에게 효율적인 전달 매체(웹, 전화상담, 자동응답)를 통하여 암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암환자 치료비 지원 등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물론 암예방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을 갖습니다.



국가암정보센터는 암정보 제공을 위해 암 관련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다빈도 암종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현재 암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전문 상담요원을 통한 전화상담, 자동응답서비스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암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6년 현재 30개 암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2006년 12월까지 10개 암종에 대해 추가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 **이용대상** : 암환자, 가족, 암과 관련된 정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
암관련 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

★ 암정보 전화상담서비스

- **이용시간** :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토, 일, 공휴일 제외)
전화상담 이외의 시간은 자동응답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전화번호** : 1577-8899
- **이메일 문의** : info@cancer.go.kr
- **제공정보** : 암종별 암의 정의,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식생활, 일상생활, 암관련 정책 등 다양한 내용
- **정보제공형태** : 전문 상담요원의 전화상담 후 이메일, 우편, 팩스로 정보 제공

★ 암정보 인터넷서비스

- **이용방법** : www.cancer.go.kr (☞ 한글인터넷 주소 : 암정보 또는 국가암정보센터)
- **제공정보** : 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흔한 6대암 및 소아암 등 여러 암종에 대한 정보
☞ 현재 소아암 중 **백혈병**, **신경모세포종**, **윌름종양**, **림프종**에 대한 내용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 **제공형태** : 암 일반정보, 동영상강좌, 최신 암정보, 자주묻는질문, 용어사전 등 다양한 형태

부모 역할 훈련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소개의 글

이 책은 부모들이 자녀와 어떻게 원만하게 지낼 수 있는가 즉,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배려해서 평생 동지로 존재할 수 있는가의 비법을 알려 주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단순한 서적이 아니다.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점검하고 치료적인 대화 기법을 연습하고 최종적으로 그 기술을 몸에 익히는 자기 실천에 관한 지침서이며, 우리 부모의 자녀 훈육에 대한 여러 가지 고정관념을 바꾸어 줄 것이다.



저자소개

토마스 고든

임상심리학자로서 1962년 캘리포니아 솔리나 비치에서 처음 17명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부모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한 토머스 고든은 전문 상담가로 일하면서 자신을 찾는 아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아이가 지닌 문제의 시발점이 부모와 교사에게 있다고 확신하기에 이른다. 그는 학부모들과의 상담 사례와 자신이 개발한 훈련프로그램을 엮어 '부모역할훈련'을 발표하였고, 그 외 저서로는 집단중심의 리더십, 교사역할훈련, 리더역할훈련, 세일즈역할훈련, 환자를 파트너로 만드는 법 등이 있다.

책의 구성

- ① 부모 역할에도 훈련이 필요하다.
- ② 부모도 감정을 지닌 사람이다.
- ③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대화의 법칙이 있다.
- ④ 듣는 것도 기술이 필요하다.
- ⑤ 젓먹이 아이들과도 적극적 듣기를 할 수 있다.
- ⑥ 아이의 행동을 받아들이 수 없을 때 대처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 ⑦ 나-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 ⑧ 환경 변화를 통해 아이의 행동을 바로 잡을 수 있다.
- ⑨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불가피한 갈등이 있다.
- ⑩ 부모에게 권위가 반드시 필요한가?
- ⑪ '무패 방법'이 왜 효과적인가?

- ⑫ '무패 방법'에 대한 부모들의 두려움과 걱정은 무엇인가?
- ⑬ '무패 방법'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⑭ 부모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⑮ 부모가 변해야 한다.
- ⑯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만이 아니다.

이 도서는 현재 재단에서 운영하는 우체국 헌사랑의집 미니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국가대표급 희망청년을 소개합니다



“골~ 골 이예요, 오늘 이호 선수 세 골 켜인데요,
저 이호 선수가 혹시 국가대표 이호 선수가 아닌가 싶을 정
도인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소아암 완치자와 연예인 축구단 슈퍼스타즈가 소아암 어린
이 완치 및 월드컵 4강을 기원하는 축구경기에서 운동장을
누비며 골을 터트린 이호 선수의 모습은 관람을 위해 참석한
많은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국가대
표급 희망청년의 치료기,,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994년 평범한 일상의 불청객

1994년..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갑
자기 팔이 심하게 아픈가 하면 저도 모르게 땀을 흘리고, 또 다
리가 아팠다가 다시 괜찮아지고 했습니다. 감기 증상이 나타나
기도 하고, 심한 구역질에 구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증상
들이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던 중, 목 근처 임
파선이 부어오른 것을 보고 병원을 찾았고, 예상치 못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란 진단을 받았지만, 당시 어렸던 저
는 어떤 병인지 잘 알지 못했고, 그저 ‘백혈병’이라는 것만 알
고 있었습니다. 처음 진단받은 당시 상황 중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은 병원 입원실로 들어가던 복도에서 저와 같은 또
는 비슷한 병으로 항암치료를 하던 친구들의 ‘송송’ 비어있는
머리숧, ‘박박’ 밀어버린 머리를 보았을 때 느낀 감정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저는 굉장히 큰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본격적인 치료를 위해 2인실에서 6인실로 옮길 때 가
기 싫다면서 난리를 쳤던 것도 그때의 두려움이 남아 있어서였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 항암치료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머리카락이 빠
져 남아있던 머리카락을 밀어버리는 의식(?)을 치르게 되었을
때..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뭐라 말할 수 없
는 감정이 북받쳐 오르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북받치는 감정을
누르고 깨끗해진 머리를 문지르며 담당 간호사 선생님께
“선생님! 저 멋있죠?”하던 모습... 이제 미소를 머금게 하네요.

울고 웃던 3년의 시간

치료 중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습
니다. 그 때마다 저의 대답은 “전부 힘들었어요!”로 시작합
니다. 골수검사, 척수검사, 방사선 치료, 항암 부작용 등 육체
적으로 힘들었던 기억 때문인 것 같아요. 척수검사를 하면서 바
늘을 제대로 꽂지 못해 아홉 차례나 시도했다가 결국 실패한 적
이 있었어요. 그때 기억은 아픔이라기보다 공포로 남아있습
니다. 하지만 그런 육체적 고통보다 저를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감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치료 받으면서 짜증내고, 투정도 부
리던 저를 다 받아주시고, 돌아서서 혼자 울고 계시던 어머니를
보았을 때가 그 어느 때보다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즐거웠던 기억도 참 많은데요, 그 중 하나는 간호사 선생님들과
의 추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소아과 선생님들이 아주 예쁘고
착하시거든요.^ 저를 비롯한 몇몇 아이들은 간호사실에서 선
생님들과 얘기를 나누며 차트정리도 도와드리고, 같이 야식도
먹곤 했습니다.

힘들다 말할 수 있는 3년 남짓 치료기간 동안 ‘꼭 나아가 한다’
는 강한 의지보다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은 닥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적응해갔던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플

이 호

1981년 6월 8일생
1994년 8월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진단
1998년 3월 치료종결
광운대학교 건축과 4학년 휴학 중

땀 아픔을 표현했고, 아프지 않을 땀 병실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도 하고 만화책도 보면서 즐거움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저 순간순간 감정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한 것이 저의 치료 자세이자 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만화책과 라디오 방송은 큰 도움이 되었답니다. 만화책이 출간되는 화요일만 손꼽아 기다렸던 기억, 아침부터 밤까지 라디오 방송 순서를 줄줄이 외우고 다니고, 치료가 끝나고 노래방에서 열창할 모습을 상상하며 열심히 노래 연습을 하던 기억이 나네요. ^^

이렇게 제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었다해도 주위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하루 종일 제 옆에서 간호해주셨던 어머니, 가끔 엄살을 부릴 때 꼭 잡아주시던 아버지의 손길, 부모님의 신경이 저에게 집중되었던 상황에서도 잘 견뎌준 두 명의 형들.. 가족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병원을 찾아주신 담임선생님과 병실로 도착한 아이들의 편지도 큰 고마움으로 기억됩니다.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웬지 저와 어울릴 것 같고 호감이 가는 건축설계로 진로를 정해 대학에 진학했고, 요즘은 졸업을 앞두고 취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건축계 소식에 속상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저에게 매력 있는 전공이랍니다. 지금의 바람은 전공을 살려 안정된 곳에서 하나씩 배우고 이뤄가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치료로 인해 인연이 닿은 활동도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2004년에 우연한 계기로 참여하게 된 '엘브루즈' 등정을 시작으로 완치자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재단에서 준비한 소아암 어린이의 완치를 기원하는 완치자 축구경기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고, 늘 운동부족이라 생각했던 저는 주저 없이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연예인 축구단과 함께 뛰다는 이야기에 더욱 솔깃했지요.^ 그 날 세 골을 넣는 영광도 누리고, 매우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날 경기 관람을 위해 참석한 많은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저를 비롯한 완치 청소년들이 작으나마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가져봅니다.

한참 치료 중에 있는 많은 친구들~ 많이 아프고 힘들겠지만, 친구들을 걱정하는 주위에 많은 분들을 생각하며 힘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치료가 끝난 뒤의 생활에 대한 준비도 병행했으면 합니다. 요즘은 병원학교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치료도 열심히! 생활도 열심히!!

파이팅 하자고요~ ^^



전후반 40분 동안 지치지 않고 운동장을 누비던 이호씨,
여자친구에게 사랑의 총알 골 세례머니를 선보이며 세 골을 기록하던
이호씨의 모습을 통해 희망을 보았습니다.

국가대표급 희망청년 이호씨!! 지금의 씩씩하고 적극적인 모습 계속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혼사랑의 집에서는...

서울 우체국 혼사랑의집

이중섭 그림속 이야기

5월 16일, 서울 혼사랑의 집 식구들은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극단 사다리에서는 '이중섭 그림속 이야기' 관람에, 또 레스토랑 張의 지영랑 사장님께서 저녁식사에 쉼터 가족들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쉼터 가족들은 오랜만에 화창한 봄날의 여유를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극단 사다리와 레스토랑 張의 지영랑 사장님의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에 대한 한결같은 배려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담당 사회복지사 조혜린 >

전남 우체국 혼사랑의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난 5월 16일 화순전남대병원에서는 5월에 태어난 환아 들을 위한 특별한 생일잔치가 열렸습니다. 생일을 맞이한 주인공들은 머리에 귀여운 고깔을 쓰고, 떡케이크 위에 밝혀진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자리에 함께한 다른 친구들과 가족들도 생일축하 노래를 부르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투병생활로 지치고 힘든 소아암 가족들의 얼굴에도 모처럼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다음번 생일잔치에서도 소아암 가족들의 밝은 모습을 기대하며, 함께 준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담당 사회복지사 정 옥 >



부산 우체국 혼사랑의집

소아암 어린이 대학체험 '나의 길을 찾아서'

5월 26~27일, 부산 혼사랑의집에선 소아암 어린이 및 형제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힘들고 긴 치료를 위해 자신의 장래에 대한 생각을 잠시 뒤로 미뤄야 했던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대학체험 '나의 길을 찾아서'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답니다. 적성·심리검사, 여러 가지 직업 탐색을 통한 자신의 목표 세우기 등의 일정이 1박 2일간 빠듯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대학 캠퍼스를 둘러보고, 희망직업별로 그룹을 나누어 의사 가운을 입고 채혈 실습을 하고, 판사복을 입고 법정에서 임시재판도 해보고, 화가가 되어 그림을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되어 수화노래를 배우기도 하였습니다. 뜻 깊은 시간을 보낸 12명의 참가자들은 이날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는 큰 선물을 받고 가슴깊이 새겼습니다. 친구들의 그 꿈들이 결실을 맺는 그날이 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행사 준비와 진행과정에 정성을 다해 참여해주신 도리도리 자원봉사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 담당 사회복지사 박미주 · 이정민 >



신촌 우체국 혼사랑의집

(주)63시티 식음사업부와 함께한 생일잔치

지난 4월 18일.

여의도 성모병원 소아혈액종양 병동은 시끌벅적했습니다.

(주)63시티 식음사업팀 봉사자 분들이 우리 친구들의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해 찾아와 주셨기 때문이지요. 오전 10시. 주황색의 예쁜 물결이 병동을 물들였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보호자분들은 조금은 달라진 생일잔치에 놀라기도 하셨으나, 봉사자분들의 따뜻한 배려로 이내 가까워져 함께 풍선놀이도 하고 음식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주)63시티 식음사업부에서는 소아혈액종양 병동 4월 생일 잔치의 음식과 선물을 모두 지원해 주셨습니다. 물질적인 지원 뿐 아니라 음식 한가지 한가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신경써 주시고, 선물도 친구들이 무엇을 좋아할까 고민고민하여 준비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생일잔치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보여주신 소아암 환아에 대한 사랑과 애정, 그리고 관심에 너무나 큰 감명을 받았답니다.

(주)63시티 식음사업부에서는 2006년 12월까지 매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생일잔치를 후원해 주실 예정입니다. (주)63시티 식음사업부와 봉사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신기한 로보체험

2006년 3월 16일.

삼성생명여의도지점의 후원으로 로봇박물관 체험을 하였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무슬무슬 내리고 날도 쌀쌀하여 가족분들이 참석하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걱정도 있었지만, 모두들 약속시간보다 일찍 와주셨습니다.^^ 소아암 환아 가족들과 삼성생명여의도지점 봉사자들과 함께한 로봇박물관 체험은 소아암 완치자인 박물관 큐레이터 선생님의 친절한 설명과 신기한 로봇 조정 체험, 3D 입체 만화 관람 등으로 알차게 진행되었습니다. 행사의 마무리는 맛있는 점심식사~ 피자과 스파게티를 먹으며 모두들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아암 환아와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후원과 함께 자원봉사를 해주신 삼성생명여의도지점에 감사드립니다.



< 담당 사회복지사 박희선 >

사랑이 모이는 곳

소아암 완치자 축구경기 AGAIN 2002

지난 5월 27일, 소아암 완치와 독일월드컵 4강을 기원하는 “소아암 완치자 축구경기 AGAIN 2002” 행사가 어린이대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내려 걱정이 많았지만, 다행히 행사가 시작되기 직전부터 거짓말같이 비가 멈추었습니다. 소아암 어린이들의 완치를 기원하는 노란 풍선을 다 함께 하늘 높이 날리면서, 치료를 마친 지 평균 5년이 넘는 소아암 완치자들이 연예인 축구단원들과 함께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



면서 치료받고 있는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뿐만 아니라 함께한 일반 시민들 또한 희망을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치료 중인 동생들을 위해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던 소아암 완치자들의 모습을 보며 지금 치료중인 소아암 어린이들이 운동장을 누비며 축구를 하는 모습을 쉽게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굶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뛰어준 소아암 완치자 여러분, 자리를 함께 빛내주신 소아암 가족 여러분, 또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슈퍼스타즈 연예인축구단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행사를 후원해 주신 우정사업본부 임직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5회 희망나무심기

2006년 4월 5일, 나무와 함께 완치의 희망을 심는 희망나무심기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올해에도 한국남동발전(주)의 후원으로 실시된 희망나무심기 행사는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 내 위치한 생태공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거친 바닷바람이 불긴 했지만, 아이들의 열정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상록수인 독일가문비를 심은 후, 자신의 나무 아래 이름도 함께 두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풍선아트와 페이스 페인팅, 물놀이 바닷가에서의 피자 타임까지... 금번행사가 우리 아이들 모두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기를 바래봅니다.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해 주신 한국남동발전(주), 영흥화력본부, 생명의 숲 자원봉사 선생님, 사진 자원봉사자 선생님. 그리고 함께 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소아암 부모회 활동을 지원합니다!

재단은 올해부터 한국백혈병소아암부모연대(대표 강태석)를 통한 소아암 부모회 지원을 시작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4월 19일, 한국백혈병소아암부모연대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소아암 부모회 지원약정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재단은 소아암 환자 부모회 활동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삼성SDS와 함께한 어린이대공원 나들이

지난 4월 18일, 삼성SDS ‘푸른마을봉사클럽’의 후원으로, 소아암 어린이 가족들과 함께 어린이대공원으로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푸른마을봉사클럽의 여러 자원봉사자분들과 소아암 어린이 가족들은 꽃빛축제 관람을 비롯하여 코끼리 쇼 관람에, 놀이기구도 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삼성SDS ‘푸른마을봉사클럽’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06 차카게살자 콘서트



우리의 아이들의 영원한 지지자, 든든한 후원자이신 이승환 홍보대사님께서 지난 4월 22일 '2006 차카게 살자' 공연의 수익금 전액, 이승환 홍보대사님 의상 경매를 통한 수익금, 공연장 입구의 모금활동을 통한 모금액 약 1,500만원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언제나처럼 올해도, 조용히 입금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소아암 어린이를 위해 너무나 많은 힘을 보내주시는 이승환 홍보대사님. 그리고 이번 차카게 살자 공연에 참여해 주신 많은 가수분들, 드림팩토리클럽, (주)구름물고기, 마스터플랜 그리고 이승환 홍보대사님과 함께 아이들에게 사랑을 보내 주시는 많은 팬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달해 주신 후원금은 '차카게살자 기금'으로 조성되어 소아암 어린이에게 치료비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우정사업본부, 소아암 어린이 돕기 캠페인

2000년부터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공익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에서는 5월 12일부터 보름동안 소아암 어린이 돕기 “만세후원 캠페인”을 실시하여 5월 27일 ‘소아암 완치자 축구경기 AGAIN 2002’ 행사에서 후원약정서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황중연 본부장님을 포함하여 총 4,076명의 우정사업본부 직원들이 본 캠페인에 참여하였고, 매월 1,483만원을 후원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본 캠페인을 통한 후원금은 소아암 어린이 쉼터 ‘우체국 헌사랑의집’ 사업에 소중히 쓰일 것입니다.

2006 꽃빛 페스티벌

어린이대공원에서는 4월 15일~5월 21일까지 (주)드림더씨앤에이 주최로 ‘2006 꽃빛 페스티벌’이 펼쳐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꽃빛페스티벌에서는 모금활동을 통해 소아암 어린이를 후원하고, 4월 18일을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의 날’로 지정하고, 환아와 가족을 어린이대공원 꽃빛페스티벌에 초청하였습니다. 재단에서는 행사장 내 홍보 부스를 마련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소아암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였습니다.



제16회 백혈병어린이돕기 경기가족걷기대회

4월 30일 제16회 백혈병어린이돕기 경기가족걷기대회가 열렸습니다. 경기고등학교 동문과 가족들이 함께 하는 본 행사에서는 해마다 백혈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성금이 모금되며 모금액 전액은 재단으로 후원됩니다. 올해도 역시 동문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소중한 후원금(10,839,900원)이 재단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경기고등학교 동문가족 여러분의 백혈병 어린이들에 대한 한결같은 관심과 사랑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개미마을

(주)개미마을의 마음씨 고우신 임직원분들께서는 3월 23일부터 26일까지 불교박람회에서 (주)개미마을의 고추장, 조청, 치약 판매를 통해 모여진 판매금 전액을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으로 전달해 주셨습니다.



제일모직

제일모직에서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230만 원 상당의 예쁜 버거지 모자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모자는 각 헌사랑의집을 통해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 세심하게 모자를 후원해 주신 제일모직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KT 망관리본부 소아암 어린이 후원금 전달

KT 망관리본부에서는 임직원분의 자발적인 모금활동을 통해 모아진 후원금을 재단으로 전달해 주셨습니다. 후원금은 백혈병으로 투병중인 강정훈(세브란스병원) 어린이에게 소중한 전달되었습니다. 정훈이에게 직접 격려의 말씀을 주고 싶어 먼 곳에서 한달음에 와주신 박태일 본부장님을 비롯한 KT 망관리본부 직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현혈증 소식

- 하나,** 파파프로덕션에서 공연하는 뮤지컬 “미스터 마우스” 공연에서 관객들이 모아주신 현혈증을 재단으로 기증해 주셨습니다.
- 두승,** 삼성증권 임직원여러분들께서는 현혈행사를 통해 모아주신 200여장의 현혈증을 재단으로 기증해 주셨습니다.
- 세영,**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직원분들께서는 현혈행사를 통해 모아주신 현혈증을 재단으로 기증해 주셨습니다.
- 네영,** 드림팩토리클럽에서는 이승환님의 팬여러분들께서 모아주신 현혈증을 재단으로 기증해 주셨습니다.

특별기금지원 환아 소개 (2006. 3~2006. 5)

우체국 호사랑기금 : 각 300만원

김 서 영 (재생불량성빈혈/서울대학교병원/대전)
 손 명 화 (비인두악성신생물/화순전남대학교병원/광주)
 최 재 승 (재생불량성빈혈/서울대학교병원/전북)
 김 은 경 (황문양종양/부산대학교병원/경남)
 우 상 훈 (뇌종양/대구파티마의료원/대구)
 노 영 민 (급성골수성백혈병/여의도성모병원/서울)
 안 대 성 (급성림프구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경기)
 나 영 서 (급성림프구성백혈병/경북대학병원/경북)
 이 혜 림 (골육종/경북대학병원/대구)
 이 재 원 (골육종/고신의료원/부산)

토탈소프트뱅크 기금 : 300만원

고 영 인 (골육종/원자력병원/부산)

KT 망관리본부 : 300만원

강 정 훈 (급성림프구성백혈병/세브란스병원/서울)

드림백토리클럽 차카게실자 기금 : 300만원

웬 흥 (급성림프구성백혈병/여의도성모병원/서울)

범우법인 대평양 여자변호사모임 기금 : 150만원

조 경 철 (급성림프구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경기)

이화여대 노동조합기금 : 120만원

안 대 성 (급성림프구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경기)

이래기금 : 각 100만원

전 진 경 (뇌종양/서울대학교병원/서울)
 이 혜 림 (골육종/경북대학병원/대구)

모태산부인과 : 매월 50만원(12개월)

전 은 서 (급성림프구성백혈병/서울아산병원/충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 주 원 (재생불량성빈혈/동아대의료원/경남) : 25,862,000원
 주 재 련 (급성림프구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서울) : 1,000만원
 임 화 경 (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서울) : 700만원

지정기탁

이 준 석 (급성림프구성백혈병/여의도성모병원/경기) : 40만원(최명자, 최재관)
 정 도 혁 (연소형골수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경기) : 1,000만원(누리미디어)
 이 성 훈 (급성림프구성백혈병/여의도성모병원/경기) : 50만원(익명)
 이 미 진 (비호지킨 림프종/서울아산병원/전북) : 매월 50만원(1년간), (익명)



알려드립니다!!

제6회 소아암 어린이 형제캠프 “우리가 만드는 세상”

참가 신청하세요~

형제캠프는~!

소아암으로 진단받은 어린이의 장기입원과 잦은 외래치료를
 늘 홀로 집에 남겨져야 했던 형제들. 건강하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님의 관심에서 조금은 멀어진 형제들만이 모여 그 동안의
 스트레스를 마음껏 풀 수 있는 자리입니다.



- 참가대상 : 소아암으로 진단받은 어린이의 형제들
선착순 40명
- 연령 : 초등학교 2학년~초등학교 6학년
- 일시 : 2005년 8월 8일(화)~8월 10일(목)
- 장소 : 용인 한화리조트(경기도 용인 소재)
- 참가비 : 1인당 10,000원
- 신청기간 : 2005년 7월 28일(금)
- 신청 및 문의 :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02)766-7671~3
각 우체국 호사랑의 집 (서울, 인천, 대구, 부산, 전남)

‘보람’ 아이들로부터 받은 큰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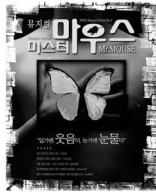
김경민 자원봉사자
삼성생명 여의도지점 소속

“안녕하세요 백혈병어린이재단입니다” .
 적어도 한달에 한번 듣게 되는 전화목소리...
 봉사활동을 시작하기 전 ‘백혈병·소아암’은 주로 드라마나 언론에서나
 접할 수 있는 생소한 주제였다. 그런 내게 입사 후 주어진 업무 중 하나는
 소아암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이었다.
 처음 아이들을 만난 것은 “로봇박물관 견학”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날, ‘아픈 아이들이면 병원에 있어야 할텐데..
 어떻게 같이 박물관 견학을 하지?’, ‘아이들을 만나면 어떻게 대해줘야 할까?’
 라는 생각을 하며 약속 장소로 나갔다.
 그러나 내 생각과는 달리 아이들은 너무나도 해맑고 밝은 모습이었고,
 어떻게 다가갈지 망설이는 나에게 먼저 말을 걸어오기까지 했다.
 괜한 우려로 시작한 첫 봉사활동은 아이들과 함께한 즐거운 추억으로 마무리 되었다.
 두 번째 봉사활동은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 중이던 친구들과 함께하였다.
 어린이날임에도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친구들을 찾아가 선물을 전해주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탈 인형을 쓰고 기념촬영을 했다. 병상에 누워
 힘들어하던 친구들까지도 탈 인형을 쓴 나에게 손을 흔들어주고 사진을
 찍기 위해 포즈를 취하며 좋아하는 모습에 힘들다고 느낄 틈도 없이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흔히 봉사활동을 통해서 ‘보람’을 느낀다고들 하는데, 나의 작은 선행이
 아이들에게 아픔을 대신해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봉사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선물도 주고 즐거움을 전하고 있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들 또한 아이들로부터 많은 것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파파프로덕션의 따뜻한 공연

파파프로덕션에서는 2006년 2월부터 시작된 뮤지컬 [미스터 마우스]와 작품성을 인정받고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연극 [라이어]를 통해 소아암 어린이를 돕고 있습니다. 뮤지컬 [미스터 마우스] 공연장에는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한 모금함과 리플렛을 비치하고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모금활동을 계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헌혈증을 기증하면 공연을 30%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는 I♡Donation 캠페인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연극 [라이어] 수익금의 1% 기증을 약속하였습니다. 파파프로덕션의 아름다운 공연 [미스터 마우스]와 [라이어]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롯데닷컴과 함께 하는 희망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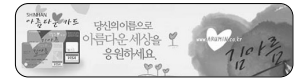
(주)롯데닷컴에서는 '희망클릭' 이벤트를 통해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계속적인 후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롯데닷컴 홈페이지에서 '롯데닷컴과 함께 하는 희망클릭' 이벤트를 만나보세요~



★ 아름다운 카드, 신한 사랑나눔

아름다운 사회공헌을 펼치고 있는 신한카드. 신한카드사의 아름다운 사회공헌 카드, 아름다운 카드는 카드 사용 시 결제액의 0.5~0.8%의 아람 포인트가 적립되며, 적립된 포인트는 이용고객이 원하는 기부처에 기부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기부 전용카드입니다. 아름다운 카드로 소아암 어린이를 후원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 <http://www.arumin.co.kr> 접속 → 메인 페이지 상단 '기부네트워킹' 클릭 → 기부처안내 클릭 → 아름다운기부처 검색창에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입력 → 기부하기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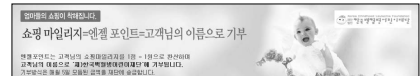


★ 맘스 다이어리 엔젤포인트

육아포털사이트 맘스다이어리는 육아쇼핑몰인 [맘스쇼핑몰]에서 고객이 물건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포인트를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기부할 수 있는 '엔젤 포인트' 기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맘스다이어리 내 쇼핑물 가는 방법 >

☎ <http://www.momsdiary.co.kr/> 클릭 → 홈페이지 상단 우측 '쇼핑몰' 클릭 → 물건 구입 → 발생된 '엔젤포인트' 소아암 어린이에게 기부



오랫동안 소아암 어린이와 함께하고 있는 나눔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롯데마트

롯데마트 서울역 지점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물건을 구입하신 후 꼭~마일리지를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기부하고 가세요~ → 마일리지를 기부하셔도 고객님의 마일리지 차감은 되지 않습니다.

★ 여러분들의 사이월드 미니홈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타운

재단의 일촌이 되어 소아암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알리고, 소아암 어린이의 수호투사가 되어주세요~
<http://town.cyworld.com/kclf>

★ 해피빈의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해피로그~

재단의 해피로그가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의 해피로그를 통해 소아암 어린이들을 후원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조카가 태어나셨어요.

옆에 누워서 몇시간을 바라보든 지킴지가 없어요.

모빌도 만들어야 하고, 사진첩도 만들어야 하고...

아... 바빠버리게요.

가끔은 다른 사람 때문에 바빠버리는 것도

꽤 행복한 일이군요.

♥ **한뜻후원자 소식** ♥

신규후원자 소개

(2006. 3. 1 ~ 2006. 5. 31 / 가나다 순입니다)

김광수 김민영 김송암 김지형 박정인 서운호 안경재 양진준
이대섭 이상운 이용문 이용현 이효정 임수현 장중한 정인수
조관용 현영단 사다리연극놀이연구소

◆ 2006년 5월 31일까지 780분이 한뜻후원자로 가입해 주셨습니다.

♥ **만세후원자 소식** ♥

신규후원자 소개

(2006. 3. 1 ~ 2006. 5. 31 / 가나다 순입니다)

김숙영 김정희 남광일 석해명 이경호 이상록 장민정 차원양
한금영 황순락

◆ 2006년 5월 31일까지 1,825분이 만세후원자로 가입해 주셨습니다.

새로 신청해 주신 후원자님, 이미 후원자가 되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후원계좌안내

- 국민은행 : 001-01-2353-890
- 기업은행 : 090-000260-04-015
- 농협 : 029-01-176943
- 우체국 : 012989-01-003327
- 조흥은행 : 310-03-002396
- 예금주 :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후원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해주고 계시는 만세회원자님께서도 편리한 CMS로 후원금을 납부하세요!

*CMS방식이란, 은행에 직접 가서 납부하시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재단 사무국으로 후원자님의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매월 일정한 날짜(5일)에 알려주신 통장에서 약정하신 후원금이 출금되는 방식입니다.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연말정산 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어 후원자님께 발송됩니다.

알려드립니다!!

재단에서 정기적으로 보내드리는 소식지와 우편물을 받아보실수 있도록 주소변경 및 연락처 변경사항이 있으면 재단으로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주소변경을 하지 않으셔서 매년 보내드리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후원금 영수증을 필요한 시기에 받지 못하시는 후원자님들이 많으십니다. 평소 우편물 수령이 잘 되지 않은 경우나 주소변경 사항이 있으시면 재단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이메일로 변경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2-766-7671~3 / E-mail : cancer@kclf.org)



사랑의 모음터

♣ 사랑의 헌혈증서 (2006. 3. 1~2006. 5. 31)

故이정현 부모님(180)	드림팩토리(110)	유미영(4)	하중운(21)
권진욱(4)	박상욱(1)	이창원(201)	허호준(허진수)(139)
기아자동차(163)	삼성증권(200)	정은수(66)	
노대섭(38)	수원새벽교회(2)	파파프로덕션(77)	

* ()는 기증하신 헌혈증 매수입니다.

♣ 특별 후원금

2006년 3월 개미마을 1,683,450	구현회 105,000	신한카드 380,308
(주)롯데닷컴 1,030,800	(주)심플소프트 110,000	파파프로덕션 505,000
4월 권태영양선생 100,000	유신혜 200,000	익명 150,000
(주)롯데닷컴 1,000,000	지마켓 17,068,320	파파프로덕션 560,000
5월 경기고등학교동창회 10,839,900	이보영영어스쿨 200,000	전영주 500,000
(주)롯데닷컴 1,000,700	지마켓 3,227,240	파파프로덕션 430,000

♣ 후원물품 (2006. 3. 1~2006. 5. 31)

빨간모자 피자	이주영父 앨범	한국남동발전(주) 밥솔
사랑터 식료품	이주현 과일	삼성생명여의도지점 가족행사 어린이날행사
삼창기업 대표 이두철 TV(2)	아이러브크리스마스 생필품	
서성혁 고등어	정지운母 TV	
수원새벽교회 문구류 생필품	(주)63시티 생월잔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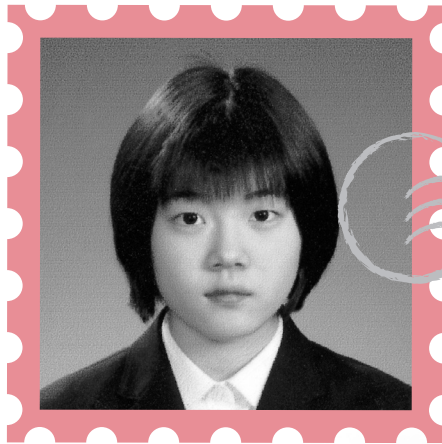
♣ 물품 후원 안내

우리 재단은 비품구입비를 절약하기 위해 사무국과 재단이 운영하는 쉼터에 필요한 물품을 기증 또는 무상 기탁을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시는 기증품 하나하나는 큰 도움이 됩니다.



천사백 이식비 지원 환아

천사백후원금이 지원 결정된 어린이들을 소개합니다. (2006. 3~2006. 5)



박 영 주 - 1,000만원
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서울
2006년 6월 제대혈이식 시행



김 형 주 - 1,000만원
급성림프구성백혈병/화순전남대학교병원/전남
2006년 6월 제대혈이식 시행

♥ 천사백운동 참여현황 (2006년 5월 31일 현재) ♥

참여후원자 : 4,720명

구좌수 : 20,846구좌

천사같은 이웃을 소개합니다.

(2006. 3. 1~2006. 5. 31까지 처음으로 후원금을 입금하신 분들입니다.)

경남은행 CMS	김석영
국민은행 CMS	김미경 김영삼 임혜영 장효영 전현미 최명경 허진수
농협 CMS	김리라 김청수 김태호 전영주 전정화 최수익 최연미
부산은행 CMS	서영호
신한은행 CMS	박현남
외환은행 CMS	김성현 정재호
우리은행 CMS	김태우 윤영준 정은경 조윤성
조흥은행 CMS	정혜영 황용완
하나은행 CMS	유정림
한미은행 CMS	정갑준 정연숙

후원계좌안내

- 경남은행 : 514-07-0175564
- 광주은행 : 200-107-315315
- 국민은행 : 031-01-0414-356
- 기업은행 : 090-000260-04-022
- 농협 : 029-01-170940
- 대구은행 : 004-05-179828-001
- 부산은행 : 070-01-021379-8
- 신한은행 : 394-01-000694
- 외환은행 : 141-22-00799-6
- 우리은행 : 112-04-112571
- 우체국 : 012989-01-003313
- 제일은행 : 225-20-385050
- 조흥은행 : 367-01-192434
- 하나은행 : 144-121835-00105
- 한미은행 : 100-59711-251

· 예 금 주 :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 천사백 후원자님께서도 후원금을 편리한 CMS로 납부하세요!!!

CMS방식이란, 은행에 직접 가서 납부하시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재단 사무국으로 후원자님의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매월 일정한 날짜(15일)에 알려주신 통장에서 약정하신 후원금이 출금되는 방식입니다.

★ CMS를 신청하시면 이점점들이 좋아요!!!

1. 매년 인상되는 지로수수료와 우편발송요금이 절약되어,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실수 있습니다.
2. CMS는 자동이체 기간을 별도로 연장하실 필요가 없으며, 해지 및 변경을 원하시는 후원자님께서도 재단사무국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이메일로 변경하실 정보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 02-766-7671~3 / E-mail : cancer@kclf.org)
3.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연말정산용 후원금 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어 후원자님께 발송됩니다.



유한양행

2006년 여름호는 유한양행(주)에서 제작지원해주셨습니다.

발행인 / 송상현 편집인 / 안효섭 발행처 /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주소 / 110-460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14-3번지 전화 / (02)766-7671~3 팩스 / (02)766-7674
<http://www.kclf.org> / e-mail : cancer@kclf.org